

리얼리티 서바이벌 「댄싱9」의 성공요인 분석과 발전방향

이 지원*

I. 서론	요인 분석 및 발전방향
II.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중성	IV. 결론 참고문헌
III. 리얼리티 서바이벌 「댄싱9」의 성공	Abstract

I. 서론

2013년 여름 한국 최초로 리얼리티 서바이벌 춤 예능 프로그램이 탄생하였다. 7월 말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었던 케이블 프로그램은 MNET에서 기획한 「댄싱9」이었다. 방송기간 동안 본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시즌 1을 끝마친 지금까지도 참가하였던 무용수들의 공연이 매진 사례를 이루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이들의 사연과 에피소드는 회자되었고 현대무용이라는 춤의 장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몸짓으로 시청자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에는 새롭게 시즌 2를 기획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으로 춤에 관한 주목과 관심을 또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실 본 프로그램이 고무적인 것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최초 춤 서바이벌 체재를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음악방송과는 다르게 전문성을 요구하며 훈련된 무용

* 성균관대학교 강사, wjoinlee@empas.com

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본 프로그램은 매 회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시청률의 고공행진을 이루었다. 온 오프라인에서 누가 우승자가 될지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인터넷, 스마트 폰에서 출연자들은 스타 못지않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춤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밝히고 대중성으로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에 중요하다. 과거의 엘빈 에일리가 '춤은 엔터테인먼트'라고 외쳤던 춤의 희열, 기쁨, 오락적 특성이 한국 사회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촉발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리얼리티 서바이벌 형태의 프로그램인 「댄싱9」에 관하여 성공요소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이 미친 사회적 파장과 의미를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본 프로그램에 관한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몇몇은 이 시대의 예술에 관한 의미의 왜곡과 상업성을 부정적 코드로 지적한다. 더러는 대중성과 예술성에 관한 춤의 공감과 공유를 받아들이지 못해 참가를 주저하는 경우도 경험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양한 춤의 영역을 구축하고 대중춤의 향유와 공연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본 연구가 이 시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예술의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수용도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컨템포러리 시대의 예술에 관한 편재성과 다양성, 상호성에 관한 폭넓은 이해로 춤에 관한 소통의 의미를 마주하길 바란다. 대중적 관심과 방송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 시대의 춤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로 이끌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의 구성은 II장에서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중성에 관하여 다루도록 할 것이다. 최근 인기몰이의 전략적 측면으로서의 리얼리티 서바이벌이라는 형태와 현황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댄싱9」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한 국내외 춤 오디션 서바이벌 형태도 다루도록 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댄싱9」의 성공 요소와 긍정적 의미에 관하여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안 할 것이다.

서바이벌 구도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사실 5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특별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춤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댄싱9」이 유일무이하기에 다른 분야와 달리 춤에 있어서 본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를 연

구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본 프로그램의 구현방식과 내용을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연구하며 한국 춤의 변화와 추이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는 2013년 「댄싱9」 방영직후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룬 배수율의 논문¹⁾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범주화를 표로 구성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등록된 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댄싱9」의 성공요인에 관한 분석을 극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더불어 발전방향에 관하여 논하기에 앞 선 논문과는 차별화되리라 생각한다. 다양한 논의와 연구는 춤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활력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댄싱9」에 관련된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뉴스와 기사, 그리고 방송이 포함되어지고 생방송과 전국투어공연을 직접 참관하였기에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댄싱9」의 성공전략을 통해 대중적 춤으로의 가능성과 의미를 진단해보고 현시대에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술에 관한 다양한 접근방향을 전망하고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II.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중성

1.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중적 인기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대중적 공감과 인기는 뜨겁다. 프로그램명 자체에 배틀, 서바이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참여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시청자의 주목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통점은 오디션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선별하여 미션을 부여하고 단점을 보완해나가고, 이들의 성장과정을 다큐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1) 배수율(2013),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논의, 「무용예술학연구」 45(6), pp.53-80.

대표적으로 케이블 티브이 MNET에서 방송된 2009년 「슈퍼스타 K」는 전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탄생을 고하였다. 시청률 20%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갱신하며 방송의 판도는 대중이 지향하는 시선과 방향으로 기울어졌다. 시청률로 대변되는 시대에 대중적 지지를 힘입어 수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무한경쟁시대를 반영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2013년에는 「슈퍼스타 K」 시즌 5가 방송되었고 진화된 형식과 편집으로 고공의 시청률을 선보였다. 2014년까지 이와 유사한 가수선발 프로그램이 줄을 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가수를 뽑는 「보이스코리아」, 「케이팝스타」, 가수들 간의 베틀을 통해 최고의 가수를 선정하는 「나는 가수다」, 아나운서를 뽑는 「신입사원」, 배우를 선발하는 「기적의 오디션」, 최고의 모델을 선정하는 「런웨이 코리아」와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등이 국내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던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해외방송인 미국 폭스사의 「아메리칸 아이돌 American Idol」이나 영국 아이티브의 「브리튼즈 갓 탈렌트 Britain's got talent」 등과 같이 공개 경연을 통해 신인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의 한국적 수용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등장한 것은 미국 내 시나리오 작가 대파업 이후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생겨난 NBC의 언솔브드 미스터리(Unsolved Mystery)(1987)에서 부터였는데, 이는 드라마나 시트콤과는 달리 적은 예산으로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장르로 평가되어 시장을 개척하였고 이제는 주도적인 큰 흐름을 이루었다.²⁾ 이러한 리얼리티 형식은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고 의상, 요리, 의류 디자인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어 방송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한국에서 보여주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구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을 하단의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다. 리얼리티와 서바이벌에 있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문인을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일반인, 전문인, 연예인 등을 포함하고 있고 대상층도 다양화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

2) Cha, Hye Mi(2012), A Study on the viewing Motivations,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Audience in Survival Audition Programs, Sungkyunkwan University, p.9.

〈표 1〉 최근 국내 서바이벌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년도	프로그램명	내용	참가대상	분야	방송기간
2012 년	「K 팝스타」	재능과 스타성을 겸비한 음악 인재를 발굴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1.12.04 ~2012.04.29
	「나는 가수다」 2	MBC의 가창력 있는 가수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연예인	음악	2012.04.26 ~2012.12.30
	「댄스 위드 더 스타」 ³	MBC의 스타와 함께하는 댄스스포츠 서바이벌 프로그램(영국)	연예인	춤	2012.05.04 ~2012.07.20
	「슈퍼스타 K」 ⁴	MNET의 일반인 대상 가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2.08.17 ~2012.11.23
	「보이스 코리아」 ¹	MNET의 오직 목소리로 승부하는 슈퍼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2.02.10 ~2012.05.11
	「위대한 탄생」 3	가수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2.10.19 ~2013.03.01
	「다이어트 워」 6	story on 리얼 라이프 체인지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미용	2012.06.09 ~08.25
	「탑 밴드」	KBS 밴드 뮤지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2.05.05 ~2012.10.13
2013 년	「파이널 어드벤처」	MBC의 연예인의 정글 서바이벌 프로그램	연예인	체육	2013.06.14 ~08.16
	「K-팝스타」	SBS의 예능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2.11.18 ~2013.04.07
	「댄싱9」	MNET의 댄싱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춤	2013.07.10 ~10.05
	「댄스 위드 더 스타」 ³	MBC의 스타와 함께하는 댄스스포츠 서바이벌 프로그램(영국)	연예인	춤	2013.03.08 ~2013.05.31
	「불후의 명곡」	KBS의 아이돌의 리메이크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연예인	음악	2011.06.04 ~현재
	「탑 디자이너」	MBC everyone의 CEO형 디자이너를 선발하는 신개념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패션	2013.01.10 ~03.28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MBC의 연예인들의 서바이벌 다이빙 대결(네델란드 Celebrity splash)	연예인	체육	2013.08.23 ~2013.09.13
	「보이스 코리아」 ²	MNET의 대한민국의 보컬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3.02.22 ~2013.05.31
	「히든 싱어」 ¹	JTBC의 모창 도전자와 원곡가수와의 노래 대결	일반인	음악	2012.12.21 ~2013.6.22
	「슈퍼스타 K」 ⁵	MNET의 대한민국의 공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3.08.09 ~2013.11.15
「너는 내 운명」	KBS 스타 중매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가족	2013.08.30 ~2013.09.07	

〈표 1〉 계속

년도	프로그램명	내용	참가대상	분야	방송기간
2014 년	「히든 싱어」 2	JTBC의 모창 도전자와 원곡가수와의 노래 대결	일반인	음악	2013.10.12 ~2014.01.25
	「K팝스타」 3	꿈이 현실이 되는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일반인	음악	2013.11.24 ~현재
	「아트스타 코리아」	CJ E&M의 국내 첫 아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미술	2014.03. 첫 방송예정
	「댄싱9」 2	MNET의 댄싱 서바이벌 프로그램	일반인	춤	2014.06. 첫 방송예정

을 받아 왔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프로그램이 증가하였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분야가 주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지면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서바이벌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으로 한정하여 수록하였다.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실정상 최근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이 늘어나고 케이블의 접근성이나 광고 비중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인 요인이 나타나면서 점차적으로 지상파와 차별되는 시도가 요구되어지고 이러한 경쟁체제와 시장의 규모로 인하여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생성되었다. 또한 시대적 상황이 퓨전시대에 걸 맞는 혼성방송의 형태도 한몫을 하였다. 일반적인 분류로 보도, 교양, 오락과 같이 세 장르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르 혼성시대에 어떠한 장르도 혼합 융합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함께 오락성이 나타나고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을 지향하는 컨버전스적 성격이 방송에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인기를 구가하였던 많은 해외 방송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문화별 특색과 결합하여 새롭게 변형되었다. 리얼리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수용자들의 요구와 성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에 위에 보여주는 표 안에서도 프로그램의 방향과 대상, 그리고 성격이 각기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며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여기에는 분명히 현장감, 사적 생활, 즉흥적인 오락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예측적 상황을 그대로 가감 없이 드러내기에 흥미롭다. 휴머니즘적

다큐멘터리의 요소와 더불어 오디션이라는 경쟁이 더해져 긴장감을 구축한다.

2. 인기를 구가한 춤 서바이벌 형식의 리얼리티 쇼

「댄싱9」은 「슈퍼스타 K」를 방송하였던 MNet에서 기획한 방송이었다. 여기에 「슈퍼스타 K」를 담당하였던 김용범 감독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구성에 있어서도 「슈퍼스타 K」의 덕을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밀하고 탄탄한 구성감을 보여주었던 흐름과 체제가 유사한 측면을 지니며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사실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해외 방송으로 「유 캔 댄스」와 「아메리카 베스트 댄스 크루」와 비교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댄스 스포츠를 중점으로 방송되었던 「댄싱 위드 스타스」와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 형식적인 측면은 서구 리얼리티 포맷과 유사한 요소들을 가미함으로써 대형화된 쇼 형태의 서구식 리얼리티 형태를 모사하고 있다. 포맷이 대형화되고 경쟁구도를 극화하는 영상전략에 치중되어 있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기도 한다.³⁾ 다음은 춤을 주제로 한 리얼리티 서바이벌 형식의 방송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1) 「유 캔 댄스」(So You Think You Can Dance)

「슈퍼스타 K」의 원조격인 아메리칸 아이돌의 제작자 사이몬(Simon Fuller)과 나이젤(Nigel Lythgoe)이 프로듀싱한 프로그램으로 형식의 유사성이 가지고 있다. 「유 캔 댄스」는 2005년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댄스스포츠, 현대무용,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가 경합을 벌이며 현재 시즌 10까지 방송되었다.⁴⁾ 미국전역을 강타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오디션을 거친 무용수들은 라스베이거스로 가는 티켓을 받게 되고 오디션(Vegas Week)을 통해 춤의 다양성을 습득한다. 솔로, 혹은 커플로 연습하여 심사위원에게 깊은 인상을 준 탑 20명이 선정된다. 참가자들의 성장 가능성, 개성, 장르 등이 시청자의 고려대상이 되며 최종우승자는 2억 5

3) 진선정(2011), 글로벌 오디션 리얼리티 쇼의 한국적 변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p. iii

4) <http://en.wikipedia.org/wiki/So_You_Think_You_Can_Dance 2014.1.21>

천만원정도의 상금을 거둬지게 된다. 본 방송은 현재 24개국에 수출되어 방송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아랍국가에서도 방송이 결정되어 시즌 1을 선보이게 될 예정이다. 2014년 6월에 시즌 11을 FOX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2) 「아메리카 베스트 댄스 크루」(America Best Dance Crew)

아메리칸 아이들을 주관하였던 랜디 잭슨(Randy Jackson)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MTV의 댄스 격돌 프로그램이다. 10만불의 상금을 두고 펼쳐졌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7명의 우승팀을 배출하였다. 「유 캔 댄스」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팀방식의 대항전이라는 것이다. 스트릿 크루들이 주로 대결한다는 점과 창의적 안무와 즉흥적 시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강조된다.⁵⁾ 따라서 개개인의 기량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한 팀의 전반적인 안무와 호흡으로 협동심과 같은 변수가 작용한다. 2008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방송되었고 최근 스페인, 이태리, 러시아, 포르투갈 등에 방송이 수출되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3) 「댄싱 위드 스타스」(Dancing with Stars)

영구 BBC에서 「Strictly come Dancing」에 이어 미국 ABC의 「Dancing with the Stars」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샐러브리티 댄스쇼이다.⁶⁾ 댄스스포츠를 중심으로 서바이벌을 펼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는 MBC에서 기획하여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2014년 현재 시즌 3까지 방송되었고 전문무용수와 인기스타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댄스 스포츠의 성장과정과 호흡을 보여주며 이들의 도전과 성공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스타가 주는 시각적 만족감과 이들의 감추어진 일상 등을 공개하며 매혹적인 연예인의 일탈과 노력 그리고 전문 무용수가 펼치는 테크닉과 서포터즈에 역할에 관한 포인트가 주목된다. 시청자들이 직접 문자를 통해 우승자를 선출하고 매회를 거듭 할수록 성숙되어가는 출연자들의 춤의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다. 댄스스포츠의 열정과 호흡 그리고 아름답

5) <<http://blog.naver.com/ssapool?Redirect=Log&logNo=130172137506>, 2013.8.20>

6) <http://www.imbc.com/broad/tv/ent/dancing_wstars3/program/index.html, 2014.1.23>

다운 무대를 만들어가는 경험들이 펼쳐진다.

4) 「댄싱9」

구조적 측면에서는 리얼리티 서바이벌이라는 점에서 「슈퍼스타 K」와 유사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댄스 프로그램의 성격과도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유 캔 댄스」처럼 다양한 춤의 장르가 만나며 오디션의 과정을 거쳐 미션을 통해 최고의 우승자를 선별한다. 여기에 「아메리카 베스트 댄스 크루」처럼 팀을 나누어 대항하는 방식이 더하여졌다. 「댄싱9」은 레드 윙스, 블루아이즈 팀을 나누어 생방송 대결을 하고 5번의 평가 중 높은 점수를 거둔 팀이 우승팀으로 무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댄싱 위드 스타스」처럼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댄스 스포츠의 경합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든 장르의 춤을 포함하고 댄싱 마스터를 중심으로 이끌어지며 생방송에서 9명의 전문평가위원들의 심사가 더하여지는 차이가 있다. 최후에는 전문인으로 좁혀지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과정은 전공자에서부터 탁월한 유전자를 지닌 비전공자까지 다양하다.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미션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혹독한 과정이 다큐처럼 펼쳐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각 단계마다 다른 개성과 실력을 드러냈으며 스타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고 즉각적으로 팬클럽이 결성되기도 하였으며, 심사위원의 혹평과 호평은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댄싱9」이 음악이 아닌 춤으로 대중적 인기를 가능하게 하였고 춤이라는 장르에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이다. 「댄싱9」은 춤으로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소통의 측면에서 반신반의하였던 우려와 난해하다는 측면을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기존의 MBC에서 댄스 스포츠라는 하나의 춤 장르에 스타를 기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시청자와 만나는 것과는 다르게 다양한 춤을 대중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다. 기존의 케이블 방송들의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시도와는 다른 춤에 관한 차별화된 전략과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춤에 관한 기대감을 새롭게 충족시켜주었다.

Ⅲ. 리얼리티 서바이벌 「댄싱9」의 성공 요인 분석

1. 「댄싱9」 프로그램의 타이틀과 구성

본 프로그램은 2013년도 1월 31일부터 5월 3일까지의 접수를 받아 본선에 참가할 무용수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오디션 진행과정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고 7월말부터는 방송이 전파를 탔다. 우승팀에게는 상금 1억원과 함께 3억원의 초호화 댄스 공연제작, 그리고 우승자에게 1억의 위시리스트(wish list)를 지원한다는 문구는 많은 무용인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특별히 장르에 국한하지 않는 춤의 다양성을 요구함으로 장르적 한계를 넘어선 기획이었다. 어떻게 보면 전공인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하였다. 오디션에 참가하였던 댄서들은 무용을 전공한 이들 뿐 아니라 취미나 그룹에 소속된 이들도 많았고, 영역에 있어서도 현대무용, 댄스스포츠, 재즈 댄스, 한국무용, 스트릿 댄스, K-POP댄스, 막춤 등 다양하였다. 방송의 의미와 방향을



〈그림 1〉 「댄싱9」 생방송 진출자

알기 어려웠기에 전공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즌 1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한 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전공생들도 오디션에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먼저 「댄싱9」이라는 프로그램명에는 의미가 있다. 모두 9명의 댄싱마스터⁷⁾가 함께 하며 9단계의 레벨⁸⁾을 통과하여야 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각 팀의 9명만이 생방송 대결에서 최

- 7) 댄싱 마스터는 재즈안무가 우현영을 비롯하여 신화의 이민우, 소녀시대 효연·유리, 현대무용가 겸 배우 이용우, 댄스스포츠 선수 출신 박지은·지우 남매, 더키, 팝핀 제이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8) 각각의 단계는 지원(1단계), 서울(2,3회)와 부산(1회)에서의 공개예선(2단계), 드래프트(3단계), 전지훈련(4-6단계), 해외평가전(7-8단계), 파이널리그(생방송 6회 9단계)로 구분되었다(<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375288>, 2013.12.3).

중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무용수들에게 춤의 시작을 “GO”라고 외치는데 이도 역시 ‘구’(9)라는 소리의 유사성으로 붙여진 것이라고 하니 철저한 준비로 인해 흥미를 자아내게 하였다.

첫 회 방송에는 ‘레드 윙스’와 ‘블루 아이즈’라 이름 붙여 각 팀과 마스터를 소개하였고 각 팀의 마스터들은 최적의 무용수들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우렸다. 팀 구분을 위한 과정을 ‘댄싱 드래프트’라고 명하였는데 댄싱마스터들은 자신의 팀으로 마음에 드는 참가자를 데려와 토너먼트식의 작업을 통해 매회 탈락자들을 배출하고 최고의 무용수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⁹⁾ 속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무용수들은 매력적인 춤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 언어로 전달 할 수 없는 움직임의 향연과 춤의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움은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다.

〈표 2〉 「댄싱9」의 전국시청률

회차	방송일자	전국시청률	비고	재방편성
1회	7월20일	0.859		주당8회
2회	7월27일	1.7		주당8회
3회	8월 3일	1.9		주당8회
4회	8월10일	1.9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주당8회
5회	8월17일	1.8		주당8회
6회	8월24일	2.5		주당8회
7회	8월31일	2.5		주당8회
8회	9월 7일	2.7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주당8회
9회	9월14일	2.5		주당8회
10회	9월21일	2.4		주당8회
11회	9월28일	1.054		주당8회
12회	10월5일	1.057		주당8회

9)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예선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다운 받아 지원하였다. 동영상 촬영분을 업로드 하여 예선 진출을 가린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개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정곡 심사와 자유곡 심사를 보게 된다. 세 번째 단계인 드래프트에서는 마스터에 의해 레드윙스나 블루 아이즈로 선발된다. 그리고 전지훈련을 통해 각각 9명의 정예 멤버를 선출한다. 5단계에서부터는 공개방송이자 생방송으로 이어지는데 두 팀은 매주 진행되는 서바이벌 공개 방송을 통해 최종 우승팀과 MVP를 선발하게 된다.

「댄싱9」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은 다음의 상황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시청률을 살펴보면, 1%를 넘으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루었다가 다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케이블 TV에서의 1%이상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시청률로만 한정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당 편성된 재방송이 8회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시보기가 있으며, 웹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한 영상이 조회수를 자랑하며 상승세를 이루었기에 그 파장과 여파가 지대하다 하겠다. 게다가 「댄싱9」 방송 이전 생방송 진출자를 예측해보고 평가하는 프로그램까지 신설되어 더욱 흥미를 자아내게 하였다. 이것은 시청자의 열렬한 호응도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케이블 TV라는 이점이 오히려 방송의 팬 층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방송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림 2〉 「댄싱9」 팬미팅

더욱이 중요한 것은 춤에 관한 대중적 인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들이 가는 곳 마다 사람이 몰렸고 팬카페가 형성되었으며 「댄싱9」의 갈라쇼는 서울, 대구, 인천, 창원, 부산에서 객석의 만원사례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각 팀원들의 개인 공연과 출연공연까지 매진되는 사례를 기록하였으니 이는 순수 무용창작공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광임에는 틀림없다 하겠다.

2. 「댄싱9」 프로그램의 성공요인 분석

프로그램의 성공요인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하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차별성이라 언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극적인 측면과 객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틀은 양선희의 연구에서 제시된 ‘현실효과’에 대한 전략을 참고적으로 인용하였다.¹⁰⁾ 극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시청자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자극을 제시하는 성격이라 할 수 있고 객

10) 양선희는 2000년 “TV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효과 장치분석”에서 극적, 객관적 현실효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연구자는 이 틀을 인용하여 「댄싱9」의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관적인 측면이라 하면 인지적이고 사실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를 제시 할 수 있는 기술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가. 극적인 측면

1) 관찰을 통한 참가자의 스토리 텔링

춤 오디션 기간 동안 출연하는 무용수들의 땀과 열정의 과정을 시청자는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었다. 참가하는 무용수들의 사연과 직업, 가정사는 대부분 공개되었다. 이런 개인적 삶에 관한 집중은 그들의 춤을 이해하고 감성을 공유하는데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출연자들의 세심한 몸짓과 캐릭터를 하나 하나 파악하고 그들의 춤을 주목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여기에는 신중한 ‘관찰’을 포함하고 있었다. 무용수들마다 개인 카메라가 따라다녔고 프리뷰 요원들이 동행하였으며, 작가들이 모니터하여 무용수만의 성격과 경험을 극적으로 끄집어내었다. ‘관찰’이 있었기에 이들만의 몸짓이 단지 기교가 아니라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있는 생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이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적 요소가 시청자의 구미에 맞게 혼합된 프로그램 포맷이라 하겠는데 복합적인 요소들이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고 이를 구성하기 위한 제작자의 편집기술과 스토리텔링의 이야기 구성이 중요한 몫을 하였다.

다양한 사연과 꿈을 가진 무용수들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카메라에 노출되었다. 이들의 즉각적이고 비예측적인 상황이 그대로 방송을 타기도 하였는데 감정조절이 어려워 팀과의 불화를 보이거나 대화 장면에서 폭발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화면으로 전달되어 인간적인 면모와 함께 다른 참가자와 구별될 수 있는 남다른 공감대를 발견하는 재미가 더하여졌다. 무용수들의 몸가짐이나 훈련 장면 등이 관음적 성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와 공감을 강조하는 적절한 구성으로 더하여졌다 하겠다.

참가자들의 사연은 다양하였다. 스포츠 댄스를 하는 김홍인은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이고 소문정은 아프신 어머니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



〈그림 3〉 「댄싱9」의 우승자 하휘동

하는 소녀가장이다. 이들의 표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남다른 무용수들이었다. 트랜스젠더 모델 겸 배우인 최한빛은 자신의 전공인 한국무용을 통해 늘 남들에 의해 저울질 당하지 않기를 염원하며 자신의 삶과 도전에 관한 진실한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한선천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에 늘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부모님에 관한 감사의 마음이 탈락의 위기에서 눈물로 보여졌고, 왕년 아이돌 멤버 Xing의 남진현과 음문석의 무대는 꽃피우지 못했던 방송에 관한 남다른 안타까움과 애잔함으로 아쉬움을 더하였다. 방송은 사람들의 인식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부유한 집안의 경제적인 여건이 뒤 받침 되기에 가능하다라는 통념을 벗어나, 치열하게 생존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절망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예술가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우승자인 하휘동은 택시운전을 하는 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은 중년의 스트릿보이라는 사실이 우승의 판가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¹¹⁾ 여기에는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감의 코드가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2) 공감자나 안내자로서의 마스터들의 역할

춤을 지켜보는 마스터들의 대화 장면이나 무의식적 움직임은 화면에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특별히 감성과 열정으로 무장한 우현영 마스터의 모습은 자상한 어머니이자 자극을 주는 동료였고 꿈으로 안내하는 멘토였다. 자신의 인생을 거는 절박한 상황이나 표현에 여지없이 눈물을 흘렸고, 감정적 찬사와 격려를 놓치지 않았으며 재미있는 말솜씨로 좌중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특색을 지닌 마스터들의 조

11) 우승자의 평가에 개인의 삶의 여정도 포함되어졌다고 여기는 것은 방송에 하휘동의 가정과 배경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진 것에 반하여 이선태의 일상과 가정사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화와 격려는 방송을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냉철하고 혹독한 시각으로 자극을 주는 박지우 마스터, 격려와 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편안함을 선사하는 이민우, 박지는 마스터,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토해내는 소녀시대, 팀의 화합을 중시하는 팝핀 제이, 감각적이고 미학적 센스가 돋보이는 이용우마스터, 색이 없는 듯 간결한 어투로 분명한 자신의 시각을 말하는 터키 마스터는 각기 자신의 심사평과 리액션으로 공감을 일으켰다.

심사위원의 감탄사는 여지없이 노출되었고 동작에 관한 설명을 통해 대중들에게 움직임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전달할 수 있었다. 슈퍼스타 k와 같은 프로그램은 노래를 하는 동안 심사 평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리가 겹쳐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춤은 다르다.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즉각적인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며 몰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기에 댄싱마스터의 감탄사, 눈물, 즉각적인 신체 반응은 무대 아닌 무대에서 움직임을 감상하는 묘미를 전달하였다. 심사위원이 느끼는 감성과 느낌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다.

3) 춤의 진정성을 통한 힐링: 도전과 치유

본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체, 그 자체는 국가나 언어를 넘어서 모두가 같은 신체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고 인간의 몸짓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용수들의 투혼은 매 회 감동을 전달하였고 움직임의 매력은 현장감으로 전달받았다. 사실 시청자들은 처음에 춤을 바라보았을 때 어렵고 난해한 몸짓으로 무엇을 말하려는가에 관한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이 거듭될수록 막연한 거부감과 느낌은 춤의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로 전환되었고 시청자의 눈높이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손짓, 얼굴 빛, 탄식, 호흡, 신체의 뒤틀림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춤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춤이 주는 진정성에 공감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위를 논할 수 없는 다양한 춤의 향연이 있었다. 재즈, 스트릿, 현대춤, 한국춤, 발레, 비보이 등 다채로운 춤의 유형은 생소하지만 독특함으로 시청자들의 미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시청자들은 난해하다고 여겨졌던 현대무용

에 공감하기 위한 미세한 떨림과 몸짓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각자 개성을 보이는 움직임의 경계와 색깔을 구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오는 희열과 감탄은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댄싱9」에는 음악의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이 보여주지 못하는 오감의 만족이 있었다. 청각으로만 전달받았던 익숙한 형태에서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적인 만족이 가중되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원곡가수의 음악에 아름다운 몸짓까지 더하여져 눈으로 감상할 수 있었다. 화려하며 역동적이고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공감을 환희로운 움직임으로 전달받는 것이다. 그들의 춤에는 도전, 힐링, 정보, 사교, 그리고 간접체험까지 제공하는 힘이 있었다.

나. 객관적인 측면

1) 오디션 서바이벌의 스케일과 장관연출

슈퍼스타K에서도 대국민의 오디션이라는 위용을 표현하기 위해 화려한 오프닝을 고집해왔던 것처럼 「댄싱9」도 이에 못지않은 스케일과 웅장함을 오프닝에서 연출하였다. 12주간 방송된 「댄싱9」은 2년 만에 컴백한 김용범 감독의 발군의 실력



〈그림 4〉 「댄싱9」 포스터

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오프닝 영상을 위해 국내 예능 프로그램 최초로 미국 LA전 지역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가받았고 LA 다운타운을 비롯한 인근 주요 건물 등에서 촬영하여 아름다운 광경을 화면에 담아내었다. 그럼으로 방송 전부터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춤꾼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도 놓치지 않았다. 영화에서 쓰는 ‘타임 슬라이스(Time Slice)기법¹²⁾을 사용하여 순간의 동작을 놓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헬

12) 국내에서도 유명한 매트릭스(1999)영화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피사체의 정지된 장면이 입체적으로 묘사되는 기법이다(김재범(2013), “「댄싱9」 오프닝 영상에 쏟은 제작비만 무려” 뉴스 웨이<<http://news.newsway.co.kr>, 2013.7.19).

리콤플렉스와 일주일 대여비만 1억여원이 넘는 항공용 촬영 장비인 '시네 플렉스(Cineplex)까지 동원하여 최고의 아름다운 춤이 선보여지도록 노력하였다. 첨단 제작기술로 디지털 영상기법과 특수효과 그리고 방송국이 보유한 막대한 영향력은 기존 방송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환상적 장면을 연출하였다.

여기에 글로벌한 규모감과 전 세계 무용인들의 참가도 한 몫을 담당하였다. 뉴욕, 파리, 러시아, 멕시코, 터키, 우크라이나, 시카고, 페루 등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한 실제 참가자들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방영되었으며 한국의 연예인들이 지원자로 참가하여 재미와 함께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끼와 열정을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평가전 시 팀 배틀 미션을 소개한 팝가스 브루노 마스,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바 있는 데릭 허프, 「스텝 업」 안무 총디렉터 크리스토퍼 스캇, 「스텝 업」과 「지아이조 2」를 연출한 존 추가 특별심사위원으로 등장하여 「댄싱 9」의 스케일과 동시에 춤에 관한 애정을 살필 수 있었다. 기존의 리얼리티 오락 프로그램과는 다른 예술로서의 접근, 주입이 아닌 공감을 주고자 하는 신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열기는 11월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부터 이어진 전국투어를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공연이 시작하기 전 무대를 가득 메운 영상은 극장에서조차 경험하지 못했던 크기와 색채감이었다. 과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선보였고 방송과 연결 지어 그 당시의 감동을 이어가고 하나하나의 몸짓을 세세하게 담아내었다. 본 공연에서는 참가자들의 길지 않은 작품이 관객들의 시선을 고정시켰고 아낌없는 재정적 지원으로 펼쳐진 소품과 장치는 135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춤을 주제로 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알리는 뜻 깊은 무대였고 춤의 경계가 화합되는 무대였으며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경험으로의 공간이었다.

2) 당락 과정의 참여와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구조

「댄싱9」에서 흥미로운 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당락의 결정이 방송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희비가 공존하며, 동시에 시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조주의 이론가인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는 이항대립구

도¹³⁾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서사 구조는 ‘이항 대립’이라고 한다. 선과 악처럼 단순하게 구별되어 갈등을 이루는 것이 인간은 흥미를 느낀다고 본 것이다.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전형적으로 참가자의 생존과 탈락, 분노와 동정 등의 이분법적 구조가 등장하고 이들의 에피소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사실 시청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전자에 감정적으로 동조하게 되고 그가 우승하기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사실 이것은 대리 만족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이기도 하다. 방송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무용수가 뽑힐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 요소를 제시하여 진행과정 속에서 당락으로 인해 더 열광하게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승자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성취욕구와 대리만족이 제공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열망과 함께 도전자에 대한 감정 이입이 표출되는 것이다. 우승자의 결정과정에 현재 시청자가 참여하고 함께 한다는 여긴다. 이선태와 하휘동의 경합에서 이선태가 400점 만점의 399점이라는 심사위원들의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휘동의 우승으로 결정된 것은 우승자의 선정에 시청자들이 함께 심사에 참여하고자하는 의지적 표현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은 당락으로 인한 극적 긴장감과 함께 열광적인 반응으로 이어지고 공명정대한 평가라는 인식으로 전달 될 수 있기에 프로그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참가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방송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통해 참가자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색다른 소통이 이루어진 경우라 언급할 수 있겠다.

13) 레비 스트로스스는 프랑스 출생의 ‘구조주의’의 대표자이다. 그는 인류학 이론의 발달과 20세기 지성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좁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류학은 사회생활의 무의식적 기반을 검토한다. 그는 문화나 문명은 열등과 우등, 현대와 야만이라는 가치가 개입된 기준에 의해 나뉘지는 것이 아니라 높음과 낮음, 안과 밖, 사람과 동물, 삶과 죽음, 남과 여 같은 ‘이항(二項) 대립’으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이러한 구조와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주경복 (1996), 『레비 스트로스』(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p. 78).

3) 화려한 방송편집과 무대장치

방송의 편집은 익숙함과 친숙함이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슈퍼스타 K」와 유사성을 가지고 진행되었기에 보다 친근하게 시청자에게 다가간 것은 사실이다. 한 예로 ‘60초 후에 만나요’, ‘멀리가지 마세요’, ‘그러나’는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는 심표의 코드로 인식하기 충분했고 방송 직후의 극적 전개는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예고편에 등장하는 심사위원들의 경악하는 모습이나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참가자들의 비예측적 반응은 바라보는 이에게 궁금증을 더하게 하였다. 마스터들의 몸짓이나 감정 섞인 움직임은 적절한 편집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였고 감미로운 음악과 조화로운 움직임은 철저히 준비된 프로그램이라는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무대장치의 화려함은 극찬을 할 만하다. 출연자들의 아이디어가 1분 30여초에 뿔어져 나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에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한 것은 무대장치이다. 매번 최고의 아름다운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품과 장치는 아낌없이 등장하였다. 특별히 생방송에서 각각의 무대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 잠깐 화면이 나가는 30여초 동안 다른 무대를 준비하며 등퇴장의 동선과 세트의 배열은 완비되어져 있었다. 무대라고 해서 단을 높이 만들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중앙에 위치시켜 카메라의 방향을 등지고 세트는 움직인다. 바닥에는 꽃잎, 눈, 종이가루, 불꽃탄이 즐비하고 동시에 세트는 침실, 철장, 거실, 재즈바, 사무실, 신전 등 그림 세트나 가구가 준비되어 있어 극적 표현과 긴장감은 더해졌다. 한 코너 한 코너에 재정적인 투자와 안무가의 의도와 표현이 더해져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함으

〈표 3〉 심리적, 구조적 측면으로 본 시청자와의 공감과 소통

극적인 측면	감정적 정서적 측면	관찰을 통한 참가자의 스토리텔링	공감 호기심 대리만족 긴장감 참여의식 화젯거리 성취감 등 자극
		공감자나 안내자로서의 마스터들의 역할	
춤의 진정성을 통한 힐링			
객관적인 측면	인지적 사실적 측면(기술성)	오디션 서바이벌의 스케일과 장관연출	
		당락 과정의 참여와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의 구조	
		화려한 방송편집과 무대장치	

로 상상할 수 있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4년 6월부터 「댄싱9」 시즌 2가 출범할 예정이다.¹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 가능한 금요일 11시로 편성되어 공감과 사랑을 이끌어 내리라 여겨진다. 춤의 활성화에 있어 자극제로 이어지고 방송이 끝나고 갈라쇼의 전회가 매진¹⁵⁾되었던 사례처럼 변방의 예술로서 춤이 머물지 않고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시대와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춤으로 탄력을 받길 기대해본다. 또한 다양한 춤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예술에 관한 고정관념을 파기하여 다양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 춤 문화가 형성되는데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3. 「댄싱9」의 발전방향

하나의 사실을 바라보는 데에는 시각에 따라 찬반으로 나눌 수 있다. 「댄싱9」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예술이 경쟁인가? 무용가가 연예인인가? 하는 시선은 간과할 수 없다. 혹은 경쟁을 부추겨 패배자와 성취한 자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가 익숙하도록 부추긴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기량이 아닌 인기가 우선시된다는 법칙 하에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출연자가 진정한 우승자라는 공식이 성립되기도 한다. 또한 단시간의 감성적 작품으로 편향된 몸짓만을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과 마스터의 전문성에 관한 다양한 판단과 잣대가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단점들을 부각하여 논할 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발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로 춤의 대중성과 다양화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방송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 국민 오디션으로 춤이라는 장르가 예능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나이, 성별, 전공, 학력,

14) <<http://kr.dancing9.interest.me/index.m>, 2014.2.13>

15) 김예나(2013). 2013년 결산,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공연은? <<http://bntnews.hankyung.com>, 2013-12-16>

김지연(2013). '댄싱9' 우승팀 레드윙즈, 상금수령+공연 매진 '함박웃음'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73193>, 2013. 12.12>

직업을 불문하고 그 어떤 이도 춤으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신선하고 진솔한 몸짓을 보고 춤추는 과정에 동행하며 이들을 지켜보며 토닥여주고 힘 줄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것은 대중과 무용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의미하며 이러한 모습이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춤을 알리고 대중적인 공감으로서의 예술로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음악의 악기로 피아노, 바이올린, 트라이앵글, 그리고 종류로도 오페라, 뮤지컬 등에 관한 이해는 자연스럽지만, 한국춤, 현대무용, 확깁, 스트릿, 비보이 등을 알지도 못하고 차이도 구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은 음악의 세분화와 같은 이해가 춤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많은 대중들에게 춤에 관한 친근함과 동시에 몸짓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체된 학계의 계보에서 벗어나 주목받지 못한 신예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춤 무대를 펼치고 다른 환경에서 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이다. 춤을 전공하는 모든 사람이 무대에 설수도, 주목받기도 어렵다. 보다 많은 무용전공생들이 다양한 현장과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에 방송은 담보적 미래에 관한 대안일 수 있다. 무용을 전공한 모든 사람이 순수예술만을 이어가야 한다는 공식을 깨고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며 또한 민주주의를 기반 한 평등의식으로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서태지나 임형주를 아는 것처럼 무용계에서도 역사적 인물로 이사도라 덩킨 만이 아니라 이선태, 이루다 등과 같이 이 시대를 말하는 무용가들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춤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수확이다. 이것은 현대무용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적 인식과 소통을 고려한 안무가의 탄생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술에 관한 획일적인 사고가 아니라 대중에게 다양한 춤과 공연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 발 짝 성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의 대중적 인기는 많은 관객들이 무용공연장에 발걸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무용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시즌 2를 앞둔 지금 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한 발전방향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예술의 평가가 자칫 상업주의적 특성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하여서는 중도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방송에 등장하는 ppl이나 과도한 카메라의 기술성, 왜곡된 편집이라는 걸림돌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춤이 중점이 되어야 할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고 실체가 뒤따라 극적 드라마라는 인상이 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편집의 화려함보다는 춤의 진정성을 가리지 않는 아름다운 시선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무용가의 춤이 중심이 되도록 방송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용수의 등퇴장이나 무대 연출이 무용수의 동선을 가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를 다루는 감독은 움직이는 무용수를 포착하는데 춤을 알고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조언이 요청된다. 안무가의 의도에서 중점이 되는 무용수의 움직임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거나 엉뚱한 부분을 포착하는 경우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시즌1에서 배출한 무용수들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예술가가 아닌 한 때의 스타로 스쳐지나가지 않도록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의 공연에 관한 홍보나 재방송도 방송이후에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일반인들과 만나는 갈라 공연도 주기적으로 이어져 해외의 브로드웨이와 같은 공연 시장이 춤의 다양성으로 확대되어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춤에 관한 방향성과 대안은 춤에 관한 인식의 지평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무용공연에 있어 예술과 대중의 대립과 편중이 아닌 균형적인 관계와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덕희의 글처럼¹⁶⁾ 춤을 존중해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 출연한 것

16) “춤을 이처럼 존중해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좋겠다. 이제 겨우 첫 발짝, 서자마자 달음박질을 하길 바라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제 겨우 첫 발짝을 내딛자마자 달음박질을 요구하지 말고 상생을 향해 나아갈 방안을 마련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IV. 결론

방송미디어 매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인기와 많은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대국민 방송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변화구도로 지금의 방송콘텐츠의 변화를 주도해 나아가고 있다 하겠다. 오디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한 공동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경쟁과 공동체적 소속감, 집단과의 조화 등을 강조하며 사회적 미로도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다.

2013년 최초로 춤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댄싱9」은 춤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재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관음증, 가학증, 인권침해, 잔인한 오락이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한 춤의 사회적 파장과 긍정적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별히 본 방송은 여러 면에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극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화려한 편집을 통한 참가자의 스토리 텔링을 사실적으로 담아내었고, 마스터의 존재가 공감자나 안내자로서의 충실히 감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춤의 진정성에 다가갈 수 있는 힐링으로서의 역할을 본 프로그램이 감당하였다고 보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을 반영하는 생존과 탈락의 이분법적 이데올로기가 극적 긴장감을 더하였으며 당락과정의 참여와 물적 양적 투입으로 오디션 서바이벌의 스케일과 장관을

하나하나 고쳐 가면 되는 거다. 솔직히 판을 벌여준 Mnet이 시즌1로 <댄싱9>을 마무리 지을까봐, 더 이상 춤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이다. 지금은 신랄한 지적보다는 격려가 필요할 시점이다.”(정석희(2013), 생방송 흑평 ‘댄싱9’ 춤꾼들을 위한 항변, 엔터테인먼트)〈2013.9.3〉

연출하였다.

그리하여 긍정적인 의미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본 프로그램은 춤에 있어서도 신인을 발굴할 수 있고 예술가를 배출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다. 춤이 대중에 의해 향유될 수 있는 예술임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다양성을 확보하며 향유할 수 있는 춤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고 하겠다. 난해하고 심오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현대무용에 관한 이해나 거리에서 개성과 열정을 품어내는 스트릿 댄스 등 다양한 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시즌 2를 앞둔 지금 본 프로그램이 많은 무용가들에게 자신의 꿈에 한 발 나아가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하며 도전을 향한 길에 박수쳐줄 수 있는 무용가들의 미래적 제안이 되길 기대해본다. 지금은 예술성을 논하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코드로만 잣대질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춤을 알리고 쉽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춤의 비전으로서 주목하길 바란다. 진지한 다큐나 교육이 아니라 예능으로서 방송을 인식하고 춤의 대중적 접근과 다양한 행보에 진심어린 박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주경복(1996). 『레비 스트로스』.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배수을(2013). 무용 대중화의 관점에서 본 댄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논의. 『무용예술학연구』, 45(6): 53-80.
- 양선희(2000). TV리얼리티 프로그램의 현실효과 장치분석.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석희(2013). 생방송 혹평 '댄싱9' 춤꾼들을 위한 항변. 엔터테인먼트 <2013.9.3>.
- 진선정(2011). 글로벌 오디션 리얼리티 쇼의 한국적 변용.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Cha, Hye Mi(2012). A Study on the viewing Motivations, Attitudes and Satisfaction of Audience in Survival Audition Programs, Sungkyunkwan University.
- 김재범(2013). “『댄싱9』 오프닝 영상에 쏟은 제작비만 무려” 뉴스웨이 <[http://](http://www.kci.go.kr)

news.newsway.co.kr, 2013.7.19〉.

위근우 “『댄싱9』 김용범 CP ”춤은 말이 필요 없다는 면에서 글로벌 콘텐츠“, 머니투데이뉴스 〈http://www.mt.co.kr, 2013.8.1〉.

김예나(2013), 2013년 결산, 올해 가장 많이 팔린 공연은? 〈http://bntnews.hankyung.com, 2013.12.16〉.

김지연(2013), '댄싱9' 우승팀 레드윙즈, 상금수령+공연 매진 '함박웃음' 〈http://enews24.interest.me/news/article.asp?nsID=273193, 2013.12.12〉.

이수아(2013. 7.28) '댄싱9' 2회만에 시청률 대박, '춤의 향연' 통했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375288, 2013.12.3〉.

오디션 프로그램의 새로운 매력 댄스오디션 프로그램 〈http://blog.naver.com/ssapool?Redirect=Log&logNo=130172137506, 2013.8.20〉.

양순임(2013.7.23), 댄싱9, 빠른 전개와 화려한 편집으로 화제성-시청률 잡았다. 〈http://moviejoy.com/TV/e_view.asp?db=TV&num=11623, 2014.1.10〉.

댄싱9 5회 퓨전미션&해외평가전 〈http://blog.naver.com/hak0230?Redirect=Log&logNo=130174458403, 2013.12.21〉.

So You Think You Can Dance 〈http://en.wikipedia.org/wiki/So_You_Think_You_Can_Dance, 2014.1.21〉.

dancing with stars 3 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ent/dancing_wstars3/program/index.html, 2014.1.23〉.

댄싱9 홈페이지 〈http://kr.dancing9.interest.me/index.m, 2014.2.13〉.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15일
심사일		2월	20일
심사완료일		2월	28일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nd Success Factors of Reality Survival 「Dancing 9」

Jiwon Lee

Lecturer in Sungkunkwan Univ.

「Dancing 9」 the first organized dance survival program in 2013 has been an important role in public's reconsideration on the awareness about dance. We need to consider the social ramification and positive role of the first Korean real survival style dance audition program that succeeded with the highest rating of 2.8% when generally 1% or above of rating are thought to be successful. This program contained composition and structure that can be appealing to the public in many aspects. First of all, with a colorful editing, the storytelling of the participants was realistically descriptive and the existence of the Masters served as a true sympathizer and guide. In addition, the binary ideology of survival or elimination, which reflects the infinite competition of the modern day society increased dramatic tension and with a physical, quantitative investment the scale and spectacle of an audition survival was created. Moreover, it acted as a healing process that could go near the sincerity of dance.

Furthermore, it first acted as a window for discovering new talent and producing artists. It presented an opportunity to prove that dance is an art that can be enjoyed by the public. Secondly, it popularized dance and attained diversity in dance. It brought a chance to present modern art that was negatively thought of as cryptic or profound and a variety of dance like street dance that embrace individuality and passion.

There can also be points to be corrected in Season2. The show must overcome editing or bias that can incline artistic evaluation to be commercial. Secondly, the show must be focused on the dancer's dance.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camera entrance, exit and stage management so there will not be incidents where the dancer's movements are not tracked. Lastly, a more detailed explanation needs

to be given as to why the dancers survive or not so that the public can empathize. Because the competences of the Masters are emphasized in this show, careful description of technical terms or points to consider should be given in fairness. A fair selection process not based on appearance or age can change the shape of how dance is perceived. For the show to be identified with more viewers, a more beautiful view on the sincerity of dance is needed rather than a 'devilish editing'. Hopefully, the program can be a stepping stone for many dancers who wish to follow their dreams and can be an applauded proposal for dancers' endeavors.

keywords: 댄싱9(Dancing 9), 리얼리티(Reality), 서바이벌(Survival), 오디션 프로그램(audition program), 춤(dance)